

세르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우리나라와의 관계	12
VI. 종합의견	12

세르비아

I. 일반개황

면적	102천 km ²	G D P	509억 달러(2008년)
인구	9.86 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5,160 달러(2008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대통령 중심제 가미)	통화단위	Serbian Dinar(RSD)
대외정책	EU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55.72

- 세르비아는 구유고연방의 중심 국가로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5,000달러 수준으로 세계은행이 분류한 중상위권 소득국가임.
- 코소보 사태로 산업기반이 파괴되어 제조업의 비율이 낮은 취약한 산업구조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되어왔으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정부 경제정책을 통해 근래 연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
- 2006년 6월 몬테네그로의 독립선언으로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연방은 세르비아에게로 계승되었으며, 2008년 2월 코소보가 서방의 도움으로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했으나 세르비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8.2	6.0	5.6	7.1	5.4
재정수지 / GDP	-0.7	0.9	-1.6	-1.9	-2.3
소비자물가상승률	13.8	17.6	6.6	10.1	6.9

자료 : IFS 및 EIU

□ 경제성장률, 2008년 하반기 이후 다소 둔화 전망

- 2007년 세르비아 경제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 흉작에도 불구하고 운송, 교역, 건설, 금융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7.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1분기에는 전자, 유류 제품, 금속, 전기기기 등의 산업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함.
-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산업생산 성장이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거시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세르비아 중앙은행은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1.8%로 낮추었음 (EIU는 2009년 제로성장 전망). 2008년 1인당 GDP는 약 5,160달러로 매년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총투자/GDP는 2006년 17.5%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2007년 8.3%, 2008년 6.6%로 최근 3년 동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 8.8%로 상승 전망

- 2008년 하반기 국제 유가 하락, 농작물의 풍작, 투자 위축 및 경제성장 둔화로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었으며,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9%에 그쳤음. 2009년 1분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및 디나르貨의 가치하락 등으로

로 물가상승률이 10%까지 올랐다가 2분기부터는 다시 주춤해져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전망

- 재정수입의 42%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2008년 1분기 21%에서 4분기 5.2%로 하락하는 등 2008년의 재정수지 적자는 최근 4년 이내 최고치인 2.3%를 기록하였음. 세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 중에서 임금과 연금비용이 상승하면서 재정적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세르비아는 IMF 차관 지원조건으로 2009년 재정수지 적자를 1.75%내외로 관리해야 하므로 임금과 연금비용에 대한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미약한 산업 생산기반과 작은 교역 및 내수규모

- 최근 세계금융위기는 구유고 내전 당시 극심한 침체 및 불황을 겪은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여 온 세르비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세르비아는 산업 생산기반이 미약하고 교역은 물론 내수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제조업은 낙후된 기술수준 등 산업 생산기반이 매우 미약하여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GDP의 64.7%를 차지하고 있음.
- 교역 대상지역은 유럽(CIS지역 포함)이 수출 95%, 수입 85%로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서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수출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주요 교역국으로 수출은 이탈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독일, 몬테네그로, 러시아이며, 수입의 경우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임.

□ 2009년 1월 IMF 대기성차관 수혜, 3월 추가 협상 타결

- IMF 이사회는 2008년 11월 세르비아 정부와 합의한 대기성차관(stand-by agreement) 지원을 2009년 1월 16일 공식 승인하였음. 세르비아는 IMF로부터 2010년 3월까지 15개월 차관으로 5억 1,8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 자금이 현 경제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IMF의 금융구제에 대해 환율 급상승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켜 위기를 겪었던 투자시장과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IMF의 지원이 발표된 이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안정화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들어 경제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3월 중순부터 IMF와 추가지원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3월 25일 향후 2년에 걸쳐 4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는 협상이 타결되었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FDI 유입 둔화

-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풍부한 천연 및 광물자원, EU 시장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특성 등 금융·산업부문 등의 지속적인 민영화로 인해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25억 달러, 2008년에는 27억 달러(7.7% 증가)를 기록함.
-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나타나면서 2008년 1,2분기 FDI는 각각 13억 달러, 11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3, 4분기에는 5억 달러, 4.9억 달러로 급속히 감소함.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2008년 하반기 금융부문에 대한 FDI 유입은 상반기의 16.5%에 불과함.

□ 최근 몇 년간 재정정책의 실패로 재정적자 심화

- 세르비아는 최근 몇 년간 재정정책의 실패로 2008년 재정수지/GDP가 2.3%까지 악화되었음. 정부는 IMF 차관공여 조건으로 2009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1.75%로 제한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특히 IMF대표단과 정부는 농업생산분야와 사회사업분야의 보조금을 2009년에는 GDP의 1.5%로 축소하기로 합의하였음.

-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이 경제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과 연금비용에 대한 긴축재정정책과 동시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2009년 경기부양 정책 발표

- 츠베티코비치(Cvetkovic) 세르비아 총리는 2009년 1월말 세계금융위기 영향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모든 경제지표(생산, 수출, 건설, 소비, 고용 등)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대폭적인 긴급처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총 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함.
- 이 금액은 정부 예산이 아닌 외국금융기관(세계은행 약 3억 달러, EU개발은행 약 2억 달러, EU투자은행 약 3억 달러) 차입 및 외국정부(독일 및 이탈리아) 차관으로 충당할 계획임(정부지출 확대는 IMF와의 대기성차관협정 약정상 제한 받음).
- 정부는 기업의 생산과 수출 장려를 위해 일반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인에 대해 저금리(5.5%) 신용 공여를 확대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소비 및 부동산 시장 진작을 위해 저금리 용자를 제공할 방침임.

□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

- 200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0%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 세르비아 정부는 고금리를 통한 긴축통화정책 등 물가안정 기조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 경제를 운용함.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로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자 세르비아 정부는 그동안 물가 및 환율안정이라는 긴축기조에서 탈피하여 기준금리 인하 및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부심하고 있음.

- 세르비아 중앙은행은 2009년 4월 기준금리를 16.5%에서 15%로 150bp인하 하였음. 현재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소비위축과 높은 대출금리 (20~40%)를 감당치 못해 도산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급속히 악화(금년 실업률 30% 상회 예상)되고 있는 상태임.

□ 국영 기업에 대한 민영화 단계적 추진

- 세르비아는 2001년 7월 민영화 법률을 제정하고 2002년도부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여 약 1,700개 기업을 매각하였고, 현재 천여개 업체(대부분 중소기업체)가 남아 있는 상태임.

3. 대외거래

<표 3>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 상 수 지	-3,281	-2,194	-2,987	-6,334	-8,721
경 상 수 지 / G D P	-13.4	-8.4	-9.6	-15.3	-17.1
상 품 수 지	-7,047	-5,563	-6,228	-9,130	-11,256
수 출	3,897	4,647	6,487	8,756	10,957
수 입	10,944	10,210	12,715	17,886	22,213
외 환 보 유 액	4,096	5,598	11,639	13,893	11,123
총 외 채 잔 액	14,718	16,295	19,606	24,144	29,824
총외채잔액 / GDP	60.0	62.1	63.2	58.2	58.6
D. S. R	11.5	12.9	22.3	25.2	22.7

자료: EIU, IMF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08년 전체 상품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하였으나, 분기별로 보면 1~2분기 40.1%, 3분기 30% 증가하였고 4분기에는 오히려 -6.8%로 수출이 감소함. 특히 CIS지역과 EU15개국에 대한 수출은 2008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1%, 12.4% 감소함으로써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전체 수입은 24.2% 증가하였으나, 수출과 마찬가지로 1~2분기 42.5%, 3분기 33.3% 증가하였고 4분기에는 오히려 -11.3%로 수입이 감소함. 이는 기업들의 신용경색으로 기계 및 제조장비의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임.
- 서유럽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내수시장 침체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2008년 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오히려 소폭 개선된 17억 달러를 기록함.

□ 디나르貨 환율 변동성 지속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4분기에 이어 2009년 초에도 디나르貨의 가치하락이 이어지자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을 위해 금년 들어 4억 8천만 유로 이상을 외환시장에 매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디나르貨 환율이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중앙은행의 디나르貨의 변동성 억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2009년 디나르貨 가치 10% 하락 전망)

□ 총외채잔액, 지속적 증대 전망

- 2007년 총외채잔액은 241억 달러, 2008년은 298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8년 58.62%를 기록하였음.

□ 단기외채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로 외채상환부담 크게 증가

- 2009년 1월 외환보유액은 2006년 이래 최저치인 10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단기외채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져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D.S.R.은 최근 5년간 외채원리금상환액의 급격한 증가로 2007년까지 25.20%까지 상승하였다가 2008년 다시 하락하였음.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6년 6월, 몬테네그로 독립 선언

- 1990년대 구소련 붕괴 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및 마케도니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함. 분리독립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자 UN주도하에 2003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이 설립됨.
- 코소보 사태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 및 서방 병력 파견 우려로 몬테네그로는 주가노비치 총리의 주도로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2006년 5월 21일 실시함. 55.5%의 지지율로 몬테네그로 의회는 동년 6월 3일 독립을 선언하였고 세르비아 의회는 6월 15일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세르비아가 연방을 공식적으로 계승하게 됨.

□ 2008년 2월, 코소보 독립 선언

- 알바니아 회교도가 밀집해 있는 코소보는 자치권 박탈 후 1998년 세르비아와 무력충돌을 감행하였으며 이후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UN의 결정(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244 of 1999)으로 세르비아 영토로 공인되면서 세르비아와 코소보간 갈등이 심화됨.
- 코소보는 미국 등 서방의 도움으로 2008년 2월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했으며, 지금까지 미국과 EU 주요 회원국 등 50여개국이 이를 승인하였음.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코소보 독립이 세계적 분리주의 운동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음.
-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은 채 2008년 8월 코소보 독립 선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권고 의견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했으며, 유엔 총회는 이를 결의안을 통해 승인하였음. 또한 세르비아는 2009년 들어 코소보의 독립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80개 국가에 서한을 보내 코소보 독립선언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금년 4월 17일까지 ICJ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 당분간은 기존 연정 지속 전망

- 민주당(DS)이 이끌고 있는 현 연정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불안정한 상태이며 조기총선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당분간은 기존 연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 민주당(DS)은 차기 연정의 새 파트너로 세르비아 진보당(SNS)를 고려하고 있으나 양당에 속한 일반 회원들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조기총선이 가지고 올 정치적 소요를 두려워하고 있음.

□ EU 가입협상 진행중

- EU는 세르비아 정부의 EU 가입을 위한 EU 안정·제휴협정(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 체결 협상을 2005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세르비아 정부가 구유고전범재판소(ICTY)에 의해 보스니아 내전시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라트코 므라디치(Ratko Mladic) 군사령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자 2006년 5월 동 협상을 중단함.
- 최근 세르비아 정부가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의 전시 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zic) 체포 등 ICTY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나 므라디치 등 보스니아 내전의 전범이 체포돼 ICTY에 인도될 때까지 SAA의 공식 발효가 보류된 상태임.
- 세르비아와 EU는 2007년 11월 7일 브뤼셀에서 SAA에 가서명하였으며, EU는 SAA 정식서명을 위한 조건으로 므라디치를 헤이그로 인도하는 등 ICTY에 대한 협력을 요구함.
- 세르비아 정부가 ICTY 기소범 즈드라브코 톨리미르(Zdravko Tolimir)의 체포에 협조하고 칼라 델 폰테(Carla del Ponte) ICTY 검사장이 주재국의 ICTY 협력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세르비아와 EU집행위는 2007년 6월 브뤼셀에서 SSA협상을 재개함.
- 한편, 세르비아는 체코의 EU 순회 의장국 기간인 2009년 6월 30일까지 EU

공식 후보국 지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체코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이 발칸지역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해 왔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코소보 독립 선언 후 폭력사태 재연 및 사회불안 가능성 증대

- 2008년 말 한 세르비아 남성을 흉기로 찌른 알바니아계 청년 2명이 체포되었으며, 2009년 들어서도 분단 도시 미트로비차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3월에는 코소보 동부에서 수백명의 세르비아계 주민과 경찰이 유혈 충돌을 벌이는 등 폭력사태가 이어짐.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는 코소보 북부에 두차례에 걸쳐 병력을 증파하였으며, 2008년 말에는 EU가 UN을 대신해 경찰, 사법, 세관 요원 2000명으로 구성된 코소보 민간임무단(EULEX)을 코소보 전역에 파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음.
- 금년 2월에는 코소보 내 소수 세르비아계 주민 수백명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 향하는 도로 3곳을 막고 코소보의 군대 창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3월에는 코소보 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군에서 군 생활을 했던 퇴역 군인들이 미지급 급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주변국가에 비해 높은 실업률 유지

- 1990년대 유고 내전으로 인한 산업 폐쇄, 외국기업 철수, 신규투자 부진 등으로 20%이상의 고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2008년 실업률은 약 27%를 기록함).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주요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동국에 대한 신용등급은 변동이 없음.
- S&P: B+ (2004.11) → BB- (2005.11)
- Fitch: BB- (2005.5)
- OECD: 7등급 (2002.11) 유지
- I.C.R.G: 101/140 (2007.12) → 125/140 (2008.6) → 117/140 (2008.11)
- Euromoney: 88/186 (2008.3) → 126/186 (2008.9) → 122/186 (2009.3)
- I.I.: 85/177 (2008.3) → 86/177 (2008.9)

<OECD CRE 회의 평가시(2009.1) 등급 유지 근거>

- * 세르비아 경제·금융부문의 취약성은 인정하지만 IMF 차관지원이 금융 껍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외환보유액도 관리 가능한 상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코소보 지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정치상황도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 이에 반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대내외 차입여건이 더욱 취약해졌고 유로존 경기침체로 수출시장 전망도 불투명하며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상황 악화 및 해외차입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등 세르비아의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었음. 결론적으로 세르비아의 등급 상황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종전의 7등급으로 유지됨.

3. 외채상환실적

□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외채는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한 수준

- 2008년 9월 초 기준으로 OECD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0.5억 달러, 중장기 17.6억 달러로 총 18.1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13.4억 달러로 전체의 74%에 달함. 리스케줄링 대상 승인 잔액은 26.3억 달러이며

기상환 금액은 26억 달러임.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8년 중 대 세르비아 교역 규모 증가

- 2008년 한-세르비아 교역규모는 5,829만 달러로 2007년 2,898만 달러 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 세르비아 무역수지 흑자폭도 2008년 5,642만 달러로 2007년 2,578만 달러 대비 119% 증가함.

□ 해외직접투자 현황('08.12월 말 현재, 총투자 기준): 없음.

VI. 종합의견

-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산업생산 성장이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거시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정부는 2008년 12월 IMF에 5억 달러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09년 3월 추가 지원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었음. 정부는 IMF 지원이 세르비아 투자시장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08년 2월 코소보의 독립 선언 이후 폭력사태 재연 및 사회불안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음. EU 가입 협상은 계속 진행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체코의 EU 순회 의장국 기간인 2009년 6월 30일까지 EU 공식 후보국 지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러한 동국의 정치·경제적 요인을 감안하여 세르비아의 신용등급은 D2에서 E로 한 단계 하락함.

전문연구원 이 세 린 (☎02-3779-5655)
E-mail : srlee@koreaexim.go.kr